

환경문제의 인식과 언론보도의 역할

김재범

(한양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1. 서론

1) 문제의 제기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존층의 구멍’이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누구도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존층을 직접 ‘볼 수도’ 또는 ‘느낄 수도’ 없다. 하지만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오존층 파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유해 광선이 들어와 인간과 지구에 살고 있는 각종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다.

언론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 중의 하나로서 각종 사회 문제들을 알리는 환경감시 기능을 통해 우리들의 현실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사회현상이든 자연 현상이든 간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알게 함으로써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사회현상을 감시 비판하여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언론이 하는 일들이 모두다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사회일수록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사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언론은 환경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귀와 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들은 언론의 보도 없이 현재 당면한 복잡한 환경문제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적절한 대처방법도 찾기 어렵다. 환경문제의 경우, 인간 생존을 위한 개발의 당위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파괴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결국 일반 수용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환경쟁점을 보도하는 방식과 환경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은 수용자의 환경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lison, A., 1997)

언론은 환경문제의 실상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의식을 증진시키고 앞으로의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뜨거운 논쟁은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적절한 보도기능 없이 일반 수용자가 복잡한 환경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에서 환경보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도 수용자들의 환경보도의 수용과 환경보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체르노빌 원자로의 폭발이나 씨 프린스 호 원유유출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건이 아닌 대부분의 수많은 환경문제들은 우리들의 눈으로 당장 확인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서야 서서히 누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특징을 안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의 경우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영기, 1999, p.115) 따라서 환경보도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¹⁾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보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큰일’이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도의 수용 행위는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환경과피로 인한 결과는 누적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도의 효과는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가정일 뿐 앞으로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론의 환경보도를 시민들은 어떻게 수용하며 평가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국내의 연구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환경보도와 환경인식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찾아냄으로써, 환경보도와 저널리즘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예를 들면,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해양오염 등 지구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은 언론이 지속적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당장 눈앞에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고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수용자들도 이러한 보도를 자주 접하다보면 ‘면역효과’가 나타나 환경보도 자체에 점차 관심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은 언론의 환경보도는 수용자효과를 잃게 될 것이다. 수용자들의 관심과 흥미의 저하는 언론들이 환경주제에 대한 보도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2) 연구문제

환경문제가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환경 인식과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의 역할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입장에서 필요하다. 게다가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선도하는 의견지도자들이 시민환경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언론학 분야에서 환경저널리즘 연구의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특수성에 기초해서 기존의 매스컴 이론들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실태는 물론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가 시민 환경의식의 성장과 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이를 주도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연구문제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환경보도 수용행위는 환경사안에 대한 수용자들의 지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환경보도에 대한 수용과 환경보도에 대한 기초지식 및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위에 제시된 개념들에 대해서는 선불리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환경보도와 수용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역시 인과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와 관련이 있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 환경오염에 대한 경험 여부 등과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와의 관계를 기술할 것이다. 또한 환경경험과 관련이 있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것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환경교육경험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수준도 파악할 것이다. 둘째,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환경문제 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현안문제와 환경보도 수용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환경문제 유형과 환경사건 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환경지식과의 관계를 통해 환경지식과 환경보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환경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2. 환경저널리즘의 부상과 언론의 역할

1) 환경문제의 현황과 환경저널리즘의 역할

유럽의 대표적인 사상가 니콜라스 루만은 현대의 환경위기와 관

련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 동안 우리가 모르고 저질러온 각종 행위들의 결과가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의 소비를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인 환경 자원의 고갈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루만은 인간이 자연고유의 생존조건을 파괴시켜 인류는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니클라스 루만, 1996, p.31) 루만은 구체적인 환경문제들을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사회가 처한 위기감을 극명하게 지적한 것이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들은 현재 우리의 감각능력으로 겨우 감지하기 시작한 것일 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환경문제가 공해배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국지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자연환경의 파괴로부터 유래한 위기는 한 지역이나 국가가 처한 문제라기보다는 인류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국지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들은 지구 온난화 현상(global warming), 오존층 파괴, 기상이변, 열대림 파괴, 생물 종(種)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온실 효과(greenhouse effect)’라고도 불리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 궁극적으로 양극지방의 빙산을 녹여 해수면의 상승을 가져와 결국 지구대륙 대부분이 물 속에 잠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오존층의 파괴’ 문제만 하더라도 오존층의 파괴를 인공위성의 사진으로 감지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오랜 동안 오존층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80년대 초 Joe Farman이 ‘오존층의 구멍

(hole in Ozone Layer)'을 발견한 이래 현재까지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해온 프레온가스(염화불화탄소—CFC)이다. 전세계적으로 냉방기 등에서 프레온 가스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파괴된 오존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외선에 인간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암, 백내장, 면역시스템의 저하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도 있다.

이밖에도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산적한 환경문제들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들의 능력으로 감지하고 있는 중대한 환경문제들로는 '핵 누출', '해양 폐기물 처리', '동물보존과 보호', '에너지 자원의 고갈' 등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UNEP, 1997, 1996)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지적되고 직접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문제들로는 대기 오염 문제, 수질오염의 문제, 쓰레기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마실 물이 점점 귀해지고, 각종 공해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 양이 너무 많아 처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의 증가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개발과 산림훼손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함께 발전시설의 부족과 핵 발전시설의 확장 및 처리시설의 불완전 등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가능성의 증가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간 협의체인 유엔은 환경문제가 미래 지구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환경규제조치와 조약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역부족인 실정이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국제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을 통한 정부간 협의와는 별도로 각종 민간 환경단체들은 환경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 민간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 사안들을 제기해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주역을 담당해 왔다. 많은 환경문제는 지역에 특수한 사정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의 주요 언론들도 민간환경 단체들의 제보나 활동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단체들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정책입안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시민환경의식의 증진을 위해서는 환경보도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환경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의 증가

환경분야의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자연과학자들이 주도해왔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공해물질의 규명과 이러한 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관심거리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환경연구를 환경공학이나 생물학 분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과학자들이 환경문제에 침묵해왔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비판적 논쟁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회과학자들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연과 사회를 분리하려는 입장을 취해왔다. Martell(1994)의 적절한 지적처럼,

사회과학이 생물학적 결정론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Martell, 1994)

그러나 환경문제는 광범위한 특성 때문에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분야의 연구와 연관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서 환경주제를 다루는 빈도와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경제학, 환경정치학, 환경사회학, 환경마케팅, 환경교육학, 환경정책학 등의 이름으로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새로운 학문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학 분야에서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Burgess는 “언론학자들은 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온 것처럼 환경정치학이나 생태학적 관점의 사회학자들은 대부분 언론의 역할을 무시해 온 경향이 있다”(Burgess, J., 1990, pp.139-161)고 비판했는데, 이것은 그 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언론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타 관련 학문분야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이나 언론을 통한 대중교육 및 여론형성 과정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사실상 최근이다. 환경보도의 급격한 증가와 시민들의 환경문제 인식에 미치는 언론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저널리즘이라는 틀 안에서 환경보도의 실태 및 내용과 효과들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의 환경주제에 관한 연구의 관심이 늘어나는 현상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의 증가 등에서 감지 될 수 있다.(Susan L. S.(ed.), 1997) 물론 아직도 사회학이나 경제학 분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주제 연구의 규모들과는 비교 할 수 없지만 주제의 심각성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교육과 환경문제

에 대한 인식 및 여론 형성에 미치는 언론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주제는 언론학 분야에서 고정적인 연구주제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환경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컨퍼런스’(Conference on Communication and Our Environment)가 조직되어 아직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학술대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²⁾

3) 환경저널리즘 연구의 성과

환경저널리즘 연구들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언론이 어떻게 환경 의제를 구성(constructed)하는가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문제를 언론제도의 시각에도 분석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환경기사 내용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오보가 발생한 경위나 과정을 연구하는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의미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보도가 대부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단어나 개념을 통해 현상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하며, 이르기 위해서는 환경보도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제로 한다.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기자의 과학적 전문지식의 결여와 정보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2) 이 모임은 아직 참가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1991년부터 시작해 매 2년마다 열려 왔다. 1997년 미국 시라큐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11개국에서 약 1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4일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999년 여름 애리조나주 립대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는 약 15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가해 환경에 관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접근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등을 환경기사가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되는 원인으로 밝혔다. (Dunwoody, S. & P. Hans Peters, 1992, pp.199-230) 환경보도를 분석한 국내연구들도 환경보도의 문제점으로 환경보도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기자의 전문성 부족과 취재원의 고의적이거나 실수로 인한 정보제공을 원인으로 꼽았다.(정재춘, 1991, pp.33-86, 김재범, 1999, pp.189-208) Dunwoody & Griffin (1993)은 ‘사건’을 쫓는 기자의 성향이 기자의 틀을 협소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Schlesinger(1987)는 텔레비전의 빠빠한 일정과 시간의 구속으로 환경보도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둘째, 언론이 환경쟁점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여러 연구들은 환경보도가 쟁점(issue) 지향적이기보다는 흥미위주의 사건(event) 지향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Greenberg (1989)와 동료들은 미국의 네트워크 텔레비전 환경뉴스는 특정 유형의 위험, 특히 대형 화학물질 유출사건과 같이 예상치 못하고 극적인 재난들과 연관된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Wilkins & Patterson(1987)도 이와 유사하게 체르노빌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달 동안 텔레비전 뉴스는 신기성(novelties)을 강조한 나머지 쟁점들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으며, 대단히 중요한 비교수치들이 생략되었다고 주장한다.

셋째, 환경보도는 시각적 요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Wilkins & Patterson, 1987, Hansen, 1990). 특히 텔레비전은 신문보다 시각적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바로 이점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Hansen(1990)은 BBC 저녁 9시 뉴스의 환경보도에서 단지 6.5%만이 자연보호나 자연에 대한 공중의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이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시각적 요소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취급되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환경저널리즘 연구결과들은 환경보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들이다. 그러나 언론학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환경주제 연구의 다른 접근은 언론의 보도내용과 이를 통한 시민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형성과 관련된 효과이론의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언론의 환경보도 내용이 수용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기존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당장 눈앞에서 확인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누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 역시 환경보도를 통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반박 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도의 수용과 환경에 대한 수용자 인식 및 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의 연구들은 환경보도가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나 여론형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한다.(Parlour, J. W. & Schatzow, 1978, Krendl, K. A., B. Olson & R. Burke, 1992)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미디어의 효과이론을 토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보도와 언론의 캠페인이 수용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증진시킨다는 논리로서 전통적인 미디어 효과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일부의 학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언론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Gunter, B. & Wober, M., 1983, Protes, D., 1987)

일부학자들은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과 관련해서 환경보도와 환경

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매개되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계급, 성 혹은 개인적인 경험과 같은 다양한 구조적인 변인들의 영향도 규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인 효과이론을 검증하는데 사용된 대부분의 사회조사 방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누적적이고 점진적인 수용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밝혀 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Alison, A., 1997)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보도가 사회의 중요의제를 설정하고 여론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Einsiedel(1990)은 환경보도를 통한 언론의 영향력을 세 가지 이유에서 설명한다. 첫째, 언론은 환경쟁점이 사회쟁점으로 부각되거나 부각되지 못하게 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환경쟁점에 대한 인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둘째, 환경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언론은 이해의 준거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언론의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양효과를 가지므로 장기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Einsiedel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론의 환경의제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 여러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8월 영국의 언론이 '바다표범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Alison, A., 1997) 1995년 유럽에서 브렌트 스파 해저 원유시추선을 대서양에 폐기처분하려는 로얄 더치 셸(Shell/Royal Dutch)의 계획에 대해 영국과 독일 등에서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저항함으로써 로얄 더치 셸이 계획을 포기하기도 했

다. 우리의 경우도 동강댐 건설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환경의제가 사회 의제로 떠오름으로써 적지 않은 사회적 영향력이 입증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언론의 환경보도가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다루는 환경문제가 다른 일반적인 사회문제들과 어떻게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환경문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나 지금 당장 눈앞에서 확인 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쟁점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및 조사설계

1) 조사내용 및 설문지 구성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수입 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환경피해의 직접적 경험여부'와 '환경교육 참여여부'의 환경경험변인과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변인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와 환경 경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등의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보도의 효과에 관련해서 환경관련 보도를 통해 다루어지는 전문적인 환경관련 문제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가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

았다.

환경보도의 수용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사 읽는 방법’,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 정도’, ‘환경보도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시급성 정도에 대한 의견’,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 원인’과 ‘대표적인 환경관련 사건’이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언론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해온 ‘엘니뇨 현상’,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열대우림 파괴’, ‘생물 종의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수용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사용한 척도들을 최대한 간단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관한 기초자료가 없는 실정에서 복잡한 척도의 사용이 조사대상자들을 혼란하게 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어서였다. 환경보도의 수용 방법은 ‘매우 자세하게’, ‘골라서’, ‘대충’, ‘읽지 않는다’의 4점 척도를 사용했다.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 정도와 이해 정도는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없는 편이다’의 3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시급함은 ‘그렇다’와 ‘아니다’의 2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엘니뇨 현상’,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열대우림 파괴’, ‘생물 종의 감소’는 우리의 현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언론보도에 자주 나타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2) 조사방법

(1) 조사지역 및 기간

이 조사는 1998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에서 총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응답자들의 일부는 인천, 안산, 수원, 안양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기간 중에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이슈가 될 환경사건이나 이벤트가 없어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변인의 영향이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조사방법 및 면접원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직접 응답자를 만나 설문 응답을 받는 1 대 1 면접방식을 채택하였다. 응답자에게 간단한 조사의 목적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건네준 후 전체를 훑어보게 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피 조사자가 응답 도중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조사자와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자는 설문지 작성의 모든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에게 선입관이나 기타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였다.

조사에 참가한 면접원들은 언론연구방법론 과목을 수강하였거나 수강중인 한양대학교 대학원학생들과 3학년 학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이 조사를 위해 언론연구방법론 강의에서 조사연구와 면접조사 요령 등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교육을 하였다.

(3) 모집단, 표집방법, 표본크기

이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일반인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표본의 표집방법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면접원으로 참가한 학생들과 표본연구의 특성과 한계 및 문제점, 확률 표본과 비확률표본 표집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각 면접원들에게 남자와 여자, 연령층,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성별 (남자/여자), 생활정도 (상/중/하), 연령구분 (20대 이하/30대/40대/50대 이상)의 3개 항목으로 표를 작성하여 매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표집은 엄밀한 의미의 무작위 확률표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적인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환경문제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외국의 기존 연구 결과는 환경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지식수준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 정보 수용과 관련한 측정 역시 일반적인 언론 보도와 수용행위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인구통계학적 속성이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³⁾

조사원 총 50명에게 10부씩 조사토록 하였으나 이들에 의한 의도적 오차를 최소화한 방지하기 위해 누구나 꼭 무리하게 10부를 마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였다. 조사가 끝난 후 조사기간에 있었던

3)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도와 수용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환경문제의 인식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하지만 특정 미디어 이용 여부를 통계하는 방식을 통해 환경문제와 언론보도와와의 관계를 살펴 기보다는 일반적인 미디어 이용 속에서 환경관련 정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이 속에서 언론의 환경보도 역할을 탐사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원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8.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치 비교분석, 상관관계 등 데이터의 특성과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4) 표본의 특성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성별은 남자 222명(50.5%) 여자 218명(49.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36.7세 이고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인 경우가 31명인 7.1%, 고졸 이하인 경우가 188명인 43.1%, 대졸인 경우가 162명인 37.2%,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가 55명인 12.6%로 집계되었다. 응답자들의 가정 월 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인 경우 72명인 17.2%,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57명인 37.5%, 200 이상이 190명으로 45.3%로 나타났다.

4. 분석결과

1)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관련이 있는 주요 변인

(1)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환경보도 수용행위와의 관계

① 성별과 환경보도 수용행위와의 관계

환경보도 수용행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남녀간의 차이

가 ‘환경정보 주요 소스’에서 나타났다. 환경정보 주요소스의 경우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환경관련 정보를 신문에서 많이 얻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TV에서 환경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16.65$, $df=2$, $p<0.001$). 하지만, 환경기사 관심 정도, 환경보도 이해 정도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사 읽는 방법’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읽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chi^2 = 9.92$, $df=3$, $p<0.1$) 이 결과는 성별이 환경보도 수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② 학력과 환경보도 수용행위와의 관계

환경보도 수용행위를 학력별로 분석해 본 결과, ‘환경정보 주요소스($\chi^2 = 17.94$, $df=6$, $p<0.1$)’, ‘환경기사 읽는 방법($\chi^2 = 43.72$, $df=9$, $p<0.001$)’, ‘환경기사 관심 정도($\chi^2 = 28.84$, $df=6$, $p<0.001$)’, ‘환경기사 이해 정도($\chi^2 = 49.60$, $df=6$, $p<0.001$)’의 변인에서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정보 주요 소스’에 있어 학력이 올라갈수록 TV보다는 신문을 주요 환경정보소스로 이용하며, ‘환경기사 읽는 방법’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환경보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43.72$ $df=9$, $p<0.001$) ‘환경기사 관심 정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관심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chi^2 = 26.84$, $df=6$, $p<0.001$), ‘환경보도의 이해 정도’에서도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환경기사를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49.60$ $df=6$, $p<0.001$) 이와 같이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학력과의 관계는 환경보도 관련내용이 과학적 지식을 요

<표 1> 연령과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와의 관계/매체 이용시간과의 관계

	오피노 현상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월대우림 파괴	생물 종의 감소	신문 이용시간	TV이용 시간	라디오 이용시간
연령	-0.16**	-0.21**	-0.24**	-0.22 **	-0.11 *	0.06	0.25 **	-0.02

구하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매체 소비 행태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가 고학력자가 많기 때문이다.

③ 연령과 환경보도 수용 행위와의 관계

환경보도의 수용행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가 환경관련 기사를 자세하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환경관련 기사에 대한 이해나 관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7.26$, $df=9$, $p<0.5$) 이러한 결과는 결국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에서는 환경관련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④ 수입과 환경보도 수용행위와의 관계

환경보도의 수용행위를 월 평균 가구 수입별로 분석한 결과 ‘환경보도의 이해 정도($\chi^2 = 21.48$, $df=4$, $p<.001$)’와 ‘환경기사 읽는 방법($\chi^2 = 21.47$, $df=4$, $p<.001$)’와 ‘환경기사관심 정도($\chi^2 = 16.67$, $df=4$, $p<.001$)’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월 평균 수입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갖는 응답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환경기사 읽는 방법’에서는 대충 읽거나 읽지 않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해 정도에서도 낮게 나타났고, 관심 정도도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표 2>) 결국 이들의 경우 환경 기사 등을 읽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나 관심 정도는 고소득 계층보다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환경경험과 환경보도 수용행위

① 환경피해 경험과 환경보도 수용행위와의 관계

응답자 가운데 환경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9.5%인 2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의 직접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간의 환경보도 수용행위를 분석한 결과 환경보도 수용행위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보도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의 요인으로 ‘직접 체험’을 주요 항목으로 꼽은 반면 환경오염의 직접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언론의 보도’를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 주요인으로 꼽았다.($\chi^2 = 47.1$, $df=4$, $p<.0001$) 이러한 결과는 환경오염의 직접 피해를 겪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언론보도가 환경문제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예상한 바와 같이 ‘환경기사에 대한 관심 정도’가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chi^2 = 42.99$, $df=4$, $p<0.001$). 이러한 결과는 환경피해경험은 환경보도기사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환경기사에 대한 이해 정도’와 환경 피해경험과의 관계는

예상한 바와 같이 환경피해를 직접 경험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chi^2 = 15.71$, $df=4$, $p<0.01$) 또한 '환경기사 읽는 방법' 역시도 환경피해 경험 유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hi^2 = 18.16$, $df=6$, $p<0.01$) 이러한 결과는 환경 피해 직접 경험이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환경교육 경험과 환경보도 수용행위와의 관계

환경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환경보도 수용 행위를 분석한 결과 '환경기사 읽는 방법'과 '환경보도 이해 정도' 및 '환경기사 관심 정도'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 보다 환경기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읽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 결과는 환경교육의 경험과 환경기사를 읽는 방법은 상호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i^2 = 40.42$, $df=3$, $p<0.001$) '환경기사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는 환경교육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보다 없는 응답자보다 이해하는 비율은 높으며,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chi^2 = 30.21$, $df=2$, $p<0.001$) '환경기사에 대한 관심'은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기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환경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chi^2 = 25.61$, $df=2$, $p<0.001$)

이러한 결과는 환경교육을 받음으로서 환경관련 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환경관련

교육을 받음으로서 환경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은 첫째,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변인보다는 학력이나 평균 소득 등이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환경 정보 등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환경 경험, 환경교육 및 환경 피해 경험 등은 수용자의 환경보도 수용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③ 환경보도 수용행위간의 관계

환경보도 이해 정도가 환경기사 읽는 방법 및 환경기사 관심 정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언론의 환경보도 내용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환경관련기사를 많이 읽은 사람은 환경기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골라서 읽는 수용자의 경우도 환경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은 많거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환경보도 내용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은 관심도 높고, 이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보도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환경보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응답자는 환경기사를 매우 자세하게 읽거나 골라서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환경기사에 대한 관심도도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도를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부분이 골라서 읽거나, 대충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환경기사 관심 정도는 보통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의 환경보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

<표 2> 환경보도 수용행위간의 관계

환경보도 이해 정도 · 환경기사 읽는 방법 · 환경기사 관심 정도		환경기사 읽는 방법	환경기사 관심 정도			Total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없는 편	
	많이 이해한다	매우 자세하게	21			21
		골라서	20	13		33
		대충	6	11	4	21
		읽지 않는 편이다	2		1	3
	Total		49	24	5	78
$\chi^2 = 32.01$ df=6, p<0.001						
환경 보도 이해 정도	이해하는 편이다	매우 자세하게	30	5		35
		골라서	30	72	1	103
		대충	22	120	27	169
		읽지 않는 편이다	2	12	10	24
	Total		84	209	38	331
$\chi^2 = 115.94$, df=6, p<0.001						
	거의 이해못한다	매우 자세하게	2	3		5
		골라서			1	1
		대충	1	10	2	13
		읽지 않는 편이다		2	5	7
	Total		3	15	8	26
$\chi^2 = 14.90$, df=6, p<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경경험과 환경문제 인식과의 관계

(1) 환경피해 직접경험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① 환경피해 경험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환경오염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항목들을 분석한 결과 '환경오염에 대한 불

안감', '환경문제의 시급성'의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거주지역의 환경오염 정도에 불안감을 느끼느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1.9%였으나, 직접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40.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환경피해경험은 주변 환경문제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72.10$, $df=2$, $p<.0001$) 환경문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환경피해의 직접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높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chi^2 = 9.41$, $df=2$, $p<0.5$) 또한 불안 원인은 직접체험의 경우가 환경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58.3%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피해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언론보도 내용인 경우가 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54.68$, $df=4$, $p<0.001$) 하지만 환경보도 기사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각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② 환경피해 경험과 환경문제 현안과의 관계

환경 오염의 피해 여부와 환경 현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 파괴 허용 여부', '거주지역 수돗물에 대한 인식', '그린벨트 완화 정책'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환경 피해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거주지역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8%에 불과했으며($\chi^2 = 11.14$, $df=4$, $p<0.5$), 그린벨트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18.47$, $df=4$, $p < 0.01$)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파괴의 경우에는 피해경험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80%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 환경교육 경험과 환경문제와의 관계

① 환경교육 경험과 환경문제와의 관계

환경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환경문제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여부는 사람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이나 시급성에 대한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환경 문제는 환경교육 경험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문제의 불안 원인은 직접 체험한 경우가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chi^2 = 11.53$, $df=2$, $p < 0.01$), 환경보도 기사의 양에 대해서도 모자란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7.72$, $df=2$, $p < 0.05$) 결국 환경교육 경험은 환경문제에 대해 피부적으로 느끼는 시급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② 환경교육 경험과 환경문제 현안에 대한 인식

환경교육 경험이 환경문제 현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 파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환경교육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고, 거주지역 수돗물에 대한 인식에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린벨트 완화정책에 대해서는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힌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밖의 응답자들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 = 6.50, df=2, p<0.5$). 이러한 결과는 환경교육 경험여부가 현재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환경문제의 심각함의 정도를 인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 경험이 미디어 이용과 환경관련 정보에서 교육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환경 현안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환경문제의 심각함 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의 환경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문제의 심각함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환경문제 인식의 관계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현대사회가 처해있는 각종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본 결과,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생활공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⁴⁾

<표 3>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연령과의 관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해 오염	토양오염	엘니뇨 현상	쓰레기 문제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산림파괴
20대	73 58.9	76 61.3	20 16.1	12 9.7	37 29.8	59 47.6	27 21.8	46 37.1	21 16.9
30대	82 60.3	92 29.6	10 7.4	8 5.9	43 31.6	88 64.7	37 27.2	29 21.3	19 14.0
40대	83 67.5	100 81.3	8 6.5	15 12.2	22 17.9	81 65.9	27 22.0	17 13.8	15 12.2
50대	45	43		6	15	38	10	6	2
이상	80.4	76.8		10.7	26.8	69.1	17.9	10.7	3.6
Total	283 64.5	311 70.8	38 8.7	41 9.3	117 26.7	266 60.7	101 23.0	98 22.3	57 13.0

*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오염문제 세 개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 수보다 많음.

대기오염의 문제와 쓰레기 문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오염의 경우 30대에서는 낮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핵오염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쓰레기 문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엘니뇨 현상은 40대에서 낮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토양오염은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다.

(2) 우리나라 역대 환경사건

우리나라 역대 환경사건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폐놀 사건이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사건 가운데 생각나는 것을 직

4) 대기오염($\chi^2 = 9.39$, $df=3$, $p<0.05$), 수질오염($\chi^2 = 16.62$, $df=3$, $p<0.01$), 핵오염($\chi^2 = 15.01$, $df=3$, $p<0.01$), 쓰레기문제($\chi^2 = 12.86$, $df=3$, $p<0.01$), 지구온난화($\chi^2 = 25.17$, $df=3$, $p<0.001$), 토양오염/엘니뇨 현상/오존층파괴/산림파괴 n.s

<표 4>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사건

대표적인 환경사건	빈도
폐놀 사건	135
시화호 오염	52
선박 침몰/유조선 기름유출/씨프린스 호 기름유출	24
수질오염/어폐류 죽음/공장폐수	20
한강 밤섬 철새부족현상/한강수질오염	8
쓰레기 매각장오염/매립장/무단투기/난지도문제	8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유출/반대시위	6
강원도 산불	6
물고기 폐죽음/바다오염/적조현상	5
대기오염/황사현상	5
안면도 사건	5
수돗물오염	5

접 기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309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135명이 폐놀 사건을 대표적인 환경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폐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밖에 시화호 오염, 기름유출로 인한 바다 오염, 공장폐수 및 생활수로 인한 수질 오염 순으로 나타났다.⁵⁾

5) 그밖의 기타 의견으로는 오존층파괴/오존주의보 (4), 황소개구리/생태계파괴 (4),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기상 (4), 원진레이온 공장사건/오염사건 (3), 굴업도 핵폐기물건설계획 (2), 골프장건설로 인한 수목림 (2), 대만 핵폐기물 (2), 지하철 공기오염 (1), 고엽제 후유증 (1), 부산 을숙도 철새 도래지 파괴 (1), 수도권매립지 대란 (1), 체르노빌 사건 (1), 중금속폐기물방치 (1), 서해안간척사업 (1) 등이었다.

(3)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관계

①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 정도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환경기사에 대한 관심 정도와 거주지 환경오염의 불안감 정도, 환경문제의 사회적 시급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이 환경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 = 56.90$, $df=2$, $p<0.001$),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chi^2 = 48.89$, $df=2$, $p<0.001$).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 원인과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과의 관계에서는 관심이 많은 경우는 직접 경험한 경우가 많았지만, 보통 정도의 관심과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불안원인으로 언론보도내용에 의한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② 환경기사 읽는 방법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환경기사를 읽는 방법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읽는 방법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사를 매우 '자세하게' 읽는다는 사람들은 환경오염의 불안감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3%인 반면, '골라서' 읽는다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 '대충' 읽는다는 사람들은 52.7%, '읽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50.0%로 나타나 자세하게 읽을수록 환경오염에 불안감을 느끼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chi^2 = 27.87$, $df=3$,

염 (1), 고엽제 후유증 (1), 부산 울속도 철새 도래지 파괴 (1), 수도권매립지 대란 (1), 체르노빌 사건 (1), 중금속폐기물방치 (1), 서해안간척사업 (1) 등이었다.

<표 5> 환경정보 수용과 환경문제 인식과의 관계

		불안원인			Total			불안원인			Total
		직접 체험	언론 보도내용	주위 사람				직접 체험	언론 보도내용	주위 사람	
환경 기사 관심 정도	많은 편이다	76 58.0	51 38.9	4 3.1	131	환경 기사 읽는 방법	매우 자세하게	36 58.1	25 40.3	1 1.6	62
	보통이 다	64 31.4	121 59.3	19 9.3	204		골라서	47 41.6	62 54.9	4 3.5	113
	별로 없는 편이다	10 27.8	19 52.8	7 19.4	36		대충	55 33.1	93 56.0	18 10.8	166
Total		150 40.4	191 51.5	30 8.1	371	읽지 않는 편이다	11 37.9	11 37.9	7 24.1	29	
		$\chi^2 = 32.26, df=4, p<0.001$				Total	149 40.3	191 51.6	30 8.1	370	
					$\chi^2 = 27.36, df=6, p<0.001$						

p<0.001) 환경기사를 읽는 방법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자세하게 읽는다는 사람들은 ‘그렇다’ 98.4%, 골라서 읽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83.9%, 대충 읽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80.2%, 읽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9.7%가 환경문제의 시급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6.11, df=3, p<0.01$)

이러한 불안원인은 환경기사를 자세히 읽는 응답자는 직접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골라서 읽거나, 대충 읽는 응답자는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불안원인이 직접경험과 언론보도내용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③ 환경보도 이해 정도와 환경문제 인식과의 관계

환경보도 이해 정도와 환경문제 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환경보도 이해 정도와 환경문제의 시급성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불안원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도의 이해 정도가 높은 사람이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원인은 직접 경험에 의한 것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환경보도를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불안원인이 언론보도에 의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도에 대한 이해 정도와 불안원인과의 관계는 심층적으로 보다 많이 이해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경우가 많고, 이해한다는 수준에서는 언론보도내용에 의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20.28, df=4, p<0.01$) 이런 결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심층적인 내용이 전달되기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며, 전체 신문기사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스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사실기사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환경지식과의 관계

환경문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민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환경기사 수용행위와 관련된 변인들 중 '환경기사에 대한 관심 정도'의 변인과 '환경기사 읽는 방법'의 변인을 검토해 보았다.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은 응답자는 관심 정도가 보통이거나, 별로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측정항목에서 높은 이해를 하고

<표 6>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과 환경지식과의 관계

항목	관심 정도			통계 값
	많다	보통	별로없음	
엘니뇨 현상	3.57	3.21	2.94	F=8.88, df=2, 428, p<.0001
오존층 파괴	3.73	3.38	3.06	F=10.16, df=2, 428, p<.0001
지구 온난화	3.63	3.28	3.29	F=5.11, df=2, 427, p<.01
열대우림 파괴	3.21	2.68	2.57	F=10.85, df=2, 424, p<.0001
생물 종의 감소	3.43	2.74	2.49	F=21.88, df=2, 427, p<.000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언론보도에서 특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항목, 즉 열대우림의 파괴나, 생물종의 감소와 같은 항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은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와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관심과 노력이 작용해야 환경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가 증가함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도를 읽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아래 환경사안에 대한 지식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자세하게 읽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모든 항목에서 지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대우림의 파괴나 생물종의 감소 등과 같은 현상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는 상당히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환경기사 읽는 방법과 환경지식의 정도

항목	읽는 방법				통계 값
	자세하게	골라서	대충	읽지 않는다	
엘니노 현상	3.71	3.48	3.16	2.58	F=12.07, df=3, 427, p<.0001
오존층 파괴	3.79	3.63	3.31	3.03	F=7.33, df=3, 427, p<.0001
지구 온난화	3.76	3.57	3.25	2.85	F=8.35, df=3, 426, p<.0001
열대우림 파괴	3.38	3.07	2.60	2.36	F=11.42, df=3, 423, p<.0001
생물 종의 감소	3.50	3.07	2.75	2.46	F=9.96, df=2, 426, p<.0001

5. 요약 및 결론

1)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와 관계 있는 변인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검사해 보기 위해 성별, 연령, 가구 수입,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환경보도 수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학력과 수입이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환경정보 주요소스'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남자는 신문을 주요 정보소스로 이용하고 여자들은 TV를 주요 정보소스로 이용하는 경향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미디어 수용행위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의 경우 환경보도 수용행위를 측정할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수입의 경우와 학력

의 경우는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경험과 환경정보 수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환경오염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환경보도 수용행위를 비교한 결과 환경피해의 직접경험은 '환경기사에 대한 관심 정도'와 '환경보도에 대한 이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환경보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p < .0001$) 피해경험은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경 피해의 직접경험은 환경보도에 대한 '이해'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해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나 모른다는 사람들 보다 환경보도를 '많이 이해'한다 라는 비율이 높고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의 비율은 낮았다. ($p < .05$)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 역시 환경보도의 수용 행위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환경기사를 '매우 자세하게' 또는 '골라서' 읽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 경험이 없다는 사람들은 '대충 읽는다'와 '읽지 않는다'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관계

환경보도기사에 대한 관심 정도와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001$)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거주지 환경오염에 불안감을 느끼는 확

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환경기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그 결과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거주지 환경오염 상태에 불안감을 느껴서 환경보도 기사에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는 환경오염 실태에 불안을 느끼게 된 원인이 언론의 보도라고 응답한 경우는 환경기사에 대한 관심이 환경기사를 많이 읽게 되고 그 결과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보도 기사를 자세하게 읽거나 골라서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거주지 환경오염에 대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기사를 대충 읽거나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거주지 환경오염에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p < .0001$) 또한 환경기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보다 환경문제의 시급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 < .0001$)

환경기사를 읽는 방법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의견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세히 또는 골라서 읽는다는 사람들은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 < .001$), 시급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환경기사를 자세하게 읽거나 골라서 읽는 반면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충 또는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3) 환경보도 수용행위와 환경지식과의 관계

환경 지식과 환경보도 수용행위와의 관계에서 환경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정도가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도와 환경기사 읽는 방식에

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정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환경관련 정보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해 정도는 인구통계학적 속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력요인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 연구는 앞서 제시된 연구문제 세 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첫째 연구문제인 환경보도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수입 등과 같은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환경문제를 인식하거나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에는 개인적인 경험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개인의 환경오염 직접 피해 여부와 환경교육의 수강여부가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급성의 정도와 불안감과의 관계를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 이해, 수용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수용이 각종 환경사안들에 대한 인식된 지식의 정도를 분석해 환경보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환경보도의 수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구통계학적인 관점에서는 학력과 수입이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가 복잡하고 이러한 기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는 만큼 학력이 수용행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결과는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환경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환경보도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경험이 환경보도의 이해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피해나 교육 경험은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결국 환경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관심과 이해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연구문제인 환경보도의 수용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보도를 적극적으로 읽거나 환경보도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환경문제가 시급하고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보도를 자세하게 읽어서 환경문제의 시급성을 높게 평가한 것인지 혹은 환경보도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감은 환경보도의 적극적인 수용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번째 연구문제인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또는 환경보도를 적극적으로 읽을수록 다양한 환경사안들에 대해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환경보도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환경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환경보도에 대해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수용행위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된 엘니뇨 현상이나 오존층 파괴 등과 같은 환경문제들을 언론 이외의 소스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따로 알 수 있는 길이 많지 않고 응답자 자신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 정보소스로 언론을 들었기 때문에 언론보도의 효과로 말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물론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한 이번 연구설계의 한계로 이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들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또한 환경 지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지식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탐색적 의미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분석된 변인들의 관계를 토대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영기(1999), 「신문 사설분석을 통한 생태위기의 현실구성에 관한 연구」, 《광전커뮤니케이션학보》 창간호, 87-119쪽.
- 김재범(1996), 「환경보호 캠페인과 언론의 역할」, 《언론학보》,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171-193쪽.
- _____ (1999), 「한국신문의 환경보도 현황과 발전방안」, 《현대산업사회연구》 제3집, 189-207쪽.
- 니클라스 루만(1996) 이남복역, 생태학적 커뮤니케이션, 유영사.
- 문종대(1997), 「환경보도의 공적 성격과 정의로운 언론행위」, 《언론학연구》 창간호, 81-106쪽.
- 정재춘(1991), 「환경보도의 정확성」, 《환경보도》, 한국언론연구원, 33-86쪽.
- Alison, A(1997), *Media, Culture and the Environment*, London: UCL Press.
- Burgess, J.(1990),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nvironmental Meanings in the Mass Media: A New Research Agenda for the 1990's," *Transaction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5, pp. 139

-161.

- Dunwoody, S. & P. Hans Peters(1992), "Mass Media Coverage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Risks: A Survey of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1), pp.199-230.
- Dunwoody & Griffin(1993), "Journalistic Strategies for Reporting Long Term Environmental Issues: A Survey of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1), pp.22-50.
- Einsiedel, E.(1990), "From Disaster Reporting to In-depth Coverage," *Media Development*.
- Greenberg et al.,(1989), "Network Evening News Coverage of Environmental Risk," *Risk Analysis* 9(1), pp.119-126.
- Gunter, B. & Wober, M.(1983), "Television Viewing and Public Perceptions of Hazards to Lif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3, pp.325-335.
- Krendl, K. A., B. Olson & R. Burke(1992), "Preparing for the Environmental Decade: a Field Experiment on Recycling Behavior,"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Feb.
- Martell(1994), *Ecology and society: An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 Parlour, J. W. & Schatzow(1978), "The Mass Media and Public Concern for Environmental Problems in Canada 1960-1972,"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13, pp.9-17.
- Protess, D., "The Impact of Investigative Reporting on Public Opinion and Policy-Making: Targeting Toxic Wast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51, pp.166-185.
- Schlesinger(1987), *Putting "reality" together: BBC News*, London: Constable.
- Susan L. S. (ed.)(1997), *Conference on Communication and Environment*, Proceedings for the fourth biennial.
- UNEP(1977), *Global Environment Outlook*, Oxford Univ. Press.

UNEP(1996), *Taking Action*, Nairobi, 김재범, 지재성, 문국현 공역, 『녹색
공동체를 위한 실천』